



지난 1986년 진우기업으로 출발한 진우씨시스템 (대표 고재완)은 우리나라 전기 배선 덕트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로 노출 배선의 혁명을 일으키고, 기술력과 최상의 서비스로 사무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알루미늄 전선 배관인 멀티와이어덕트(U.T.Pole)라는 제품으로 1999년부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던 진우씨시스템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배선 회로 일체형 형광등기구 결합덕트'를 개발, 2006년 3월 전력신기술 제34호로 지정됐다.

**간편한 시공, 시간 단축 등 잇점 많아**

이 신기술을 적용한 '라이트웨이(LITE WAY)'라는 제품은 지난 1999년 특허를 출원했지만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 2003년에야 첫 출시를 할 수 있었다.

형광등기구의 배선, 단자대와 분기접속기, 단위 모듈간 커넥터, 안정기, 램프 등을 공공 배선수납공간인 덕트 안에 장착, 일체화시켰다. 그로 인해 단위 모듈간 접속성을 향상시켰고 통신배선용 공간을 확보해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알루미늄 덕트 옆면에 흠을 내 매달 수 있는 구조라 시공도 간편하다.



벽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출된 형태로, 기존에도 '레이스웨이(RACE WAY)' 라는 제품이 있지만 설치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별도의 현장 가공이나 설치, 결선 작업 없이 부착할 수 있으며, 완제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기 기술자가 아니라 단기숙련 작업자도 설치가 가능해 설치 시간은 물론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알루미늄 재질을 이용, 가벼우면서도 인테리어 요소를 강화했으며, 전자파 장애가 없도록 통신배선의 수납 공간을 확보해 안정성도 높였다. 덕트의 연결도 가능해 길이 조절이 가능하며 수평이동도 자유롭다. 때문에 지하주차장이나 대형마트에서 많이 사용된다.



레이스웨이(RACE WAY)

#### 'V-check' 마크 획득해 안정성도 인정

라이트웨이는 레이스웨이에 비해 상부의 덮개와 몸체의 구조가 천정부 누수로부터 안전한 방우형 구조이며, 누전 및 감전으로부터 보호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알루미늄에 분체 도장 처리되어 연색성과 절연성이 좋다.

보양제는 단순 투명 PVC 제품으로 쉽게 보양하고 제거할 수 있는 재질이며, 등기구부와 직선부의 규격이 같아 작업이 용이하다. 게다가 램프가 매입된 구조로 충격으로부터 보호기능이 있으며, 먼지와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되고 배광은 원형 특성을 갖고 있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전력신기술로 지정됐지만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보니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규격이 없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

진우씨시스템은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정하중시험과 온도상승 시험 등 각종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지난해 산업자원부의 형광등기구 저압 옥내배선 시설에 관한 적합성 평가 결과 '연접설치등기구' 라는 이름으로 승인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V-check' 마크를 획득해 안정성도 인정받았다.

진우씨시스템은 현재 라이트웨이를 이용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정을 찾을 경우 다음 제품의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홍보실 양승수



라이트웨이(LITE WAY)



## “전문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발전해 나갈 것”

\* 인터뷰 / 진우씨스템 고재완 대표

진우씨스템의 경영방침은 무엇인지.

저희같이 작은 회사에서는 한 분야에서 잔뼈가 굵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전문화를 통해 틈새시장을 만들어 공략해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과의 차별화가 바로 생존전략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다른 신기술이 있는지.

소재를 통한 틈새를 찾는 것입니다. 전기제품들은 알루미늄 자재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 제품들을 알루미늄 소재로 대체하는 것이죠. 보통 3년에서 6년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하기 때문에 현재 주력하고 있는 제품의 시장 관리가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진우씨스템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차별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끝까지 가는 노력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차별화와 독자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목표는.

현재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1~2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올해의 목표는 이미 예전에 세워둔 것일 뿐입니다. 현대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춰야 하는 멀티플레이어의 시대입니다. 구성원들이 각자 하나씩만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멀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우씨스템은 비록 작은 기업이지만 큰 기업들처럼 전문화, 다양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interview